

2023학년도 동국대학교 해외학술탐방 보고서

RPCE 결과 보고서

박상준 윤창섭 이지환 조민우



01



탐방 일정, 계획

출입국 정보

일자	항공사	항공편명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지	도착시간
2/13(화)	LOT	L00098	인천(ICN)	12:50 PM	바르샤바(WAW)	6:40 PM
2/13(화)	LOT	L00383	바르샤바(WAW)	8:40 PM	프랑크푸르트(FRA)	10:40 PM
2/28(수)	LOT	L00282	런던(LHR)	10:25 AM	바르샤바(WAW)	1:55 PM
2/29(목)	LOT	L00097	바르샤바(WAW)	11:50 AM	인천(ICN)	3/1(금) 7:10 AM

최종 일정표

일자	국가	도시	숙소명	주요일정
2/13(화)	독일	프랑크푸르트	에어비엔비(Raunheim) : Haus nahe Frankfurt flughafen	이동 전 숙박
2/14(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에어비엔비(Godfred) : 3 cosy rooms Cathedral City center Strasbourg	EU Parliament 방문
2/15(목)	프랑스	파리	에어비엔비(Leslie) : Apartment au coeur du Marais	이동 후 휴식
2/15-16(금)	프랑스	파리	..	Greenpeace Paris 방문
2/17(토)	프랑스	파리	..	소르본 대학가 인터뷰
2/18(일) - 2/19(월)	프랑스	파리	..	센강/룩상부르그 공원 플로깅 및 관광
2/20(화)	영국	런던	에어비엔비(Oliver) : Charming 2 bedroom flat in Camden/Islington	이동 후 숙박
2/21(수)	영국	런던	..	Google 마케터 Mariya와 미팅
2/22(목)	영국	런던	..	옥스퍼드 대학 방문/인터뷰
2/23(금)	영국	런던	..	성균님/Ghosh와 미팅 (성균 : IT회사 재직 중, Ghosh : 탄소 관련 스타트업 COO)
2/24(토) - 2/27(화)	영국	런던	..	Thames river clean up 참여 및 관광
2/28(수)	영국	런던	..	귀국 비행기 탑승

02



탐방 내용 및 인터뷰(스트라스부르)



쁘띠 드 프랑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리로 향하는 여정 중 EU Parliament가 있는 스트라스부르에 들림.

스트라스부르는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에 있어서 두 국가의 색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도시로 유명함.

유럽연합 의회의 사정 상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1박2일의 짧은 시간동안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를 둘러볼 수 있었음.

왼쪽 사진은 도시 내에 있는 '쁘띠 드 프랑스' 구역 사진 중 하나임.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1200년대에 지어진 고딕 양식 건축물로 16세기 천분 시계와 장미창을 만날 수 있는 대성당임.

스트라스부르 관광 중 들를 수 있었음.

02



탐방 내용 및 인터뷰(파리)

인터뷰 준비(카페)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탄소배출량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창업 아이템의 수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를 계획함. 이에 따라 필요한 질문들을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서 준비함.



실제 인터뷰

인터뷰를 준비하던 카페에서 대학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청년 세명을 발견함. 질문을 다 정리한 이후 이들에게 첫 질의를 시작했음.

탄소배출량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을 이 셋 모두 0부터 10중 6~7 정도의 스코어로 표현해주었음. 우리 팀의 창업 아이템에 대해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있다면 분명 사용할 것이고 프랑스 파리에 적용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음.

또한 본인들을 포함해 프랑스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평소 자전거와 전기 이동수단을 자주 이용한다는 조언을 주었음.

02



탐방 내용 및 인터뷰(파리)

센강 플로깅

파리 센강 산책로와 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곳곳에서 플로깅을 진행함. 주로 담배꽂초와 맥주 유리병 등의 쓰레기를 주웠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쓰레기들을 주워담으면서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함. 플로깅 진행 중 만난 사람들이 꽤 관심을 표했으며, 우리를 지켜보던 어떤 시민분들은 직접 쓰레기를 주워서 가져다주시기도 하셨음.



인터뷰

센강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 중 만난 파리 시민분과 인터뷰를 진행함. 중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분으로, 현지에서 일하며 살고있는 분이셨음.

평소 탄소배출량과 지구온난화에 9점(0~10 중)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의 창업아이템이 구현되어 서비스된다면 꼭 이용할 거라고 말씀해주셨음. 또한 이 분 역시 파리에서 적용되면 꽤 효과가 있을 거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음.

탄소중립에 선진적인 행보를 보이는 나라답게 관련된 시민의식이 꽤 높음을 알 수 있었음.

02



탐방 내용 및 인터뷰(파리)

파리 소르본 대학교

파리에서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소르본 대학교에 방문하였음. 767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며 마리 퀴리, 보부아르, 사르트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을 많이 배출하였음.



인터뷰

파리 소르본 대학에 직접 재학중인 학생을 인터뷰함.

이 학생 역시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창업 아이템이 구체화되어 나온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음.

하지만, 아이템이 실제로 서비스화되려면 인프라 관리, 마케팅 등 넘어야 할 벽이 꽤 있어보인다고 조언을 해주었음. 또한 본인 역시 평소 전기 자전거를 자주 이용한다며 파리에서 탄소배출량이 절감되는 활동을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음.

02



탐방 내용 및 인터뷰(파리)



파리 관광

인터뷰 및 플로깅 등의 일정을 마친 후 파리 관광을 했음.
루브르 뮤지엄, 오르세 뮤지엄, 에펠 타워, 센 강 유람선(바토무슈) 등
파리 관광객 필수 코스를 둘러보았음.

파리는 도시 그 자체로 전통과 예술의 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음. 특히 파리 중심지는 오히려 현대적인 건축 양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전 유럽의 역사와 혼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이 정취를 느끼며 관광을 하다보니,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도 했음.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주변 열강들에 의해 끊임없이 침략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제강점기 등 근현대 시기에 문화유산 및 건물들이 많이 파괴된 도시임.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앞으로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 고유의 것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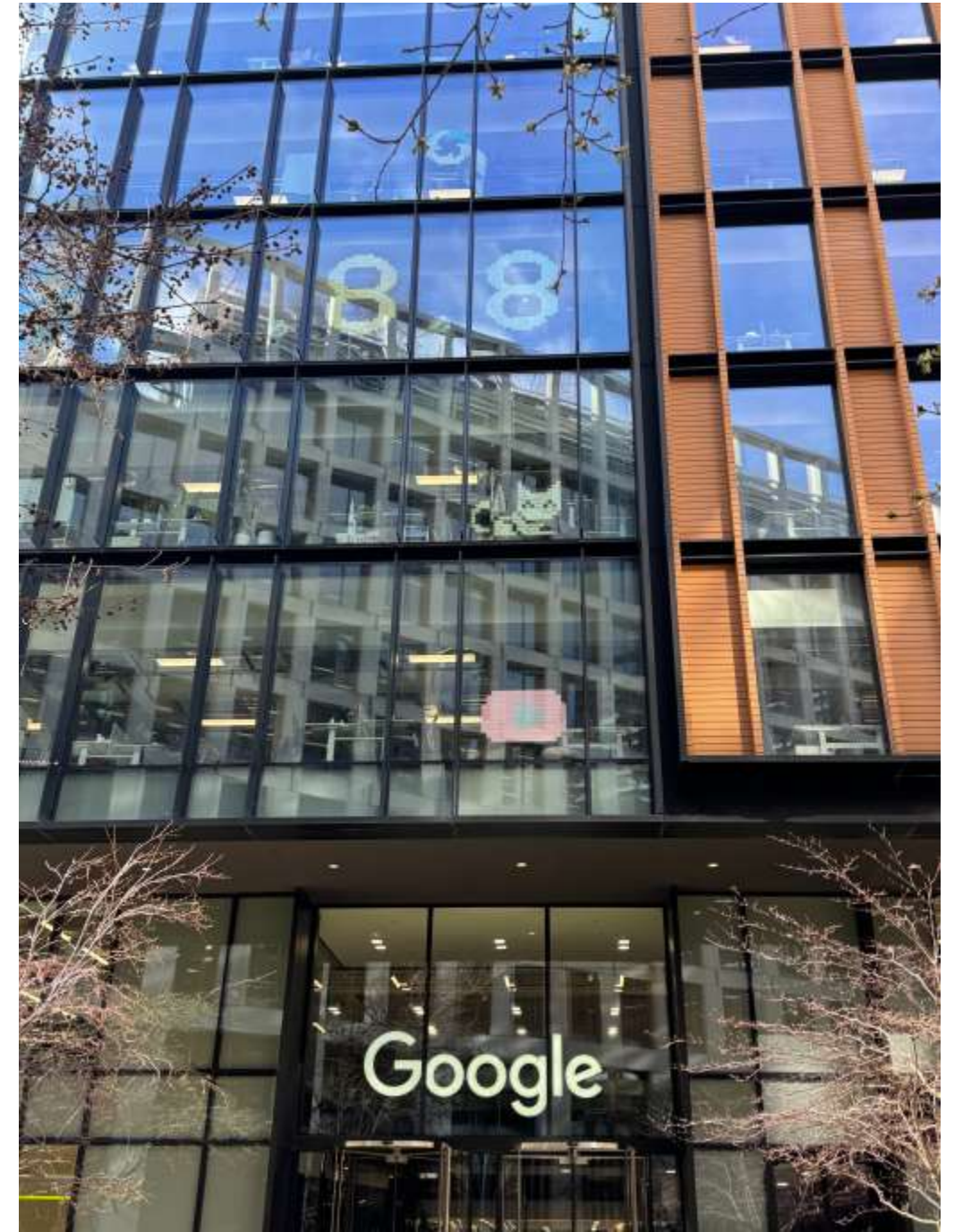


탐방 내용 및 인터뷰(런던)

구글(Google) 마케터 Mariya와의 인터뷰

런던 킹스크로스역에 위치한 Google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Mariya와 컨택에 성공했음. Mariya는 선뜻 본인의 점심시간을 내주었고 아낌없이 창업 아이템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음. 아이템의 밸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으나, 서비스가 제대로 되려면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음.

1. 구독 서비스를 활용해서 서비스의 가치에 함께하고 싶은 유저를 모을 수도 있겠다는 조언
2. 런던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업체가 너무 많아서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에 활용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다고 했고, 이런 파트너십과 같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아 아이템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고 말해주었음.



또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페이지를 나누어서 먼저 가장 중요한 탄소량 절감 및 포인트화에 대해 서비스한 이후 그 다음으로 생각해봐도 늦지 않고, 그 편이 오히려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해주었음.

우리 팀은 전공 특성 상 오히려 기술적인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데, 잘 알지 못하는 마케팅 분야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음.

02



탐방 내용 및 인터뷰(런던)

런던 IT 종사자(성균 님)

런던 IT회사에서 사이버 보안 직무를 맡고 계신 '성균'님을 만나서 인터뷰 하였습니다. 유년시절과 성년시절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내셔서 한국말이 조금 서툴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통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준수하셔서 오히려 한식집, 카페 등을 다니며 우리를 잘 이끌어주셨고 창업 아이템과 런던생활 전반 등에 대해 농도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성균님은 유년시절을 국제학교에서 보내고 런던에 자리잡은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Mariya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조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IT기술 분야에서 활동중이셔서 테크적인 조언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킥보드의 경우 포인트를 얻는 방식을 굳이 회사랑 직접 파트너십을 맺는다고보다 은행API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아이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보다 다른 기존 서비스에 편입해서 중간 단계에서의 비즈니스로 활용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역시 메타버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2



탐방 내용 및 인터뷰(런던)



런던 관광

트라팔가 광장, 대영 박물관, 타워브릿지, 빅벤 등 런던 관광에 필수적인 곳들을 돌아다녔음. 대영 박물관 말고도 테이트 모던 같이 무료로 운영중인 박물관, 미술관들이 많아서 관광 자체에는 자금을 절약하며 다닐 수 있었음.

런던은 파리에 비해 더 도회적이고 서울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음. 전반적으로 바쁘고 빠르게 굴러가는 시스템을 지녔고 사람들의 옷도 비교적 무채색에 가까우며 그들의 분위기 자체가 현실 생활에 지친 채로 쳇바퀴를 굴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지만 그에 반해 우리같은 관광객들에겐 더 친절했고, 차별적 시선을 보내는 느낌이 덜했음. 이민자들이 많은 특성도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또 그런 점에서 만약 우리의 아이템을 한국에서 성공시켜서 외국으로 확장한다면 되레 파리보다 런던이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음. 시민의식으로 보나, 아이템 자체에 대한 호응도로 보나 파리가 좀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 비즈니스를 하기엔 좀 더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했음.

03



느낀점 및 발전 계획

처음엔 유럽으로 떠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걱정이 되기도 했음. 흔치 않은 장시간 비행이기도 했고, 비용을 절약한다고 경유 비행기를 예약해서 이동 시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음. 팀 네명이 모두 4학년이기도 해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음.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16일의 해외학술탐방은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주었음. 한국 안에서만 사고하고 생각하던 것들을 먼 대륙에 가서 직접 그곳의 청년들과, 또 현업자들과 소통하는 경험은 절대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했음. 비단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인생의 비전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음.

아이템 자체를 유럽으로 확장해본다면? 에서 시작했던 사유는 실제로 서비스가 공고히 되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법하다는 생각으로 변모하기도 했음. 물론 이것은 아주 먼 일이 되겠지만 그동안은 사고 자체를 한국에 국한시켰다면 이제는 유럽으로, 해외로 넓혀서 생각해볼 수 있는 도전의식을 얻었으며 훗날 직업을 갖거나 외국으로 이민할 일이 생긴다면 지금의 경험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시작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음.

또한 Mariya와 성균님으로부터 실질적인 조언을 얻어서 우리의 창업 아이템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음. 메타버스와 연결짓는 아이디어는 과감히 잘라내고, 탄소배출량 절감 활동을 포인트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 페이지로 먼저 삼아볼 것임. 기술 기반의 구현을 진행함과 동시에 파트너십, 유저확보와 같은 기획/마케팅 측면의 비즈니스를 꾸준히 고민하여 조금 더 큰 대회나 공모전에 아이이템을 제출해볼 생각임.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학교와 장학팀에 깊은 감사를 포함.